

아시아공동체란 무엇인가

행정학과 정수연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은 매주 유명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을 통해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수업이었다. 그 동안 들었던 많은 강의들 중에서 몇 가지 인상 깊었던 강의는 우선 한일경제협력과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강의다. 아시아공동체 수업을 하면서 주로 한국과 일본의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강의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 가장 먼저 접했던 강의였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역사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지만 이 강의를 통해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부터 어떻게 경제협력을 이루어 왔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한일경제협력의 방향과 아시아공동체에서 한일의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강의는 일본분이시지만 한국어로 강의를 해주셔서 새로웠고 한일관계를 위해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강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중앙아시아라는 것부터 생소하였었고 중앙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들도 잘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이 자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아시아의 나라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과도 자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앞으로 한국과 또 다른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외에도 문화적 측면에서 한중일의 영화에 대한 강의는 쉽고 재밌게 들을 수 있었던 강의였고, 동아시아지역의 관계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설명해 주신 강의도 다른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연관되어 있어서 더 집중해서 들었고 많은 내용을 배워갈 수 있었다.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은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한중일의 관계가 과거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어떠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식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문화에 대한 강의는 적었던 것 같다. 문화라는 것이 넓은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나라를 하나로 이어주기에 가장 쉽고 빠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도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이번 수업의 가장 특별한 부분은 한일경제협력에 대한 학술대회였다.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고 일본정책연구센터 개소기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처음 참석해보는 학술대회이기도 했고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의 시대라는 주제가 흥미로웠다.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 한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모습과 일본의 시각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이루어진 내용은 주로 한국과 일본의 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사실 한국의 경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일본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본의 경제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 또한 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치적으로는 경색되어 가지만 이런 정치문제를 경제와 구분하고 경제적으로는 상호 협력해 나가서 두 나라가 윈윈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학술대회에서만이 아니라 마지막 수업에도 한일 관계에 있어 정치문제와 경제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내용들로 채워진 시간이었었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는 수업에 연관되어 있어서 참석했었

지만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시간이었기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다시 참석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은 다양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었지만 가장 큰 틀은 수업의 제목처럼 아시아공동체가 무엇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것이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아시아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변화와 관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들었던 중국의 일대일로 라든지 일본의 아베노믹스, 동아시아의 역내 현황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아시아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최근 중국의 부상이 주목되고 아세안의 중요성이 커져 나가면서 세계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한중일이 핵심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같은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 온 만큼 앞으로도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시아공동체를 이끌어나가는 데 한국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에서는 아시아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루어졌지만 한국이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그 안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들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강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아공동체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젊은 인재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분야의 학문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다.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역사 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 말에 동의를 한다. 언어를 배우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업을 하는 것이 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젊은 인재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사실 그냥 듣기만 했다면 잘 기억에 남지도 않고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것인데 매주 들었던 강의를 많지 않은 한 페이지 분량으로 보고서를 쓰면서 주제에 대해 생각도 많이 해보고 강의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한 학기지만 생각보다 여러 주제들로 강의를 이루어졌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달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강의를 많이 생겨나서 더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